

特輯 刊行에 즈음하여

이번 號는 法科大學의 峨山研究基金에 의한 研究論文들을 編輯한 것으로서 그 두 번째의 特輯이 되는 셈이다.

上記 基金은 전통적으로 有能한 人材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본교 法科大學 교수들의 研究活動을 지원하고자 하는 깊은 뜻에서 1978년에 現代企業그룹의 鄭周永 會長께서 증여해 주신 것으로 그동안 그 果實의 대부분이 본래의 목적 ——법대교수들의 연구보조——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. 이 特輯은 바로 그러한 결실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發行者로서 흐뭇한 느낌과 함께 鄭會長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.

끝으로 本號에 좋은 研究論文을 내주신 여러 교수들과 이 特輯刊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金致善 學長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.

1981. 11.

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長

裴 載 湜